

고흥군, 청년 권익증진·정책발굴 본격 나섰다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내달22일까지 20여명 안팎

고흥군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팔걸고 나섰다.

고흥군은 청년이 직접 참여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흥군 청년정책협의체 제3기 위원을 지난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흥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청년들이 처해있는 문제를 행정과 함께 고민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실에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시책을 군에 제안하는 소통창구로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정책협의체는 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군민으로 청년정책 전반에 관심이 많고 군정에 참여의지가 높은 청년이며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다.

군은 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상자를 제

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 위원들은 임기(2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흥형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각종 청년정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청년정책협의체로 선발된 위원들의 원활한 정책 제안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모임 정례회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

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이 행복한 고흥’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청년들의 소통 창구인 청년정책협의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협의체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작성 후 고흥군청(인구정책과)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등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국비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보성군, 내년 예산 6312억원

보성군은 지난 27일 ‘2024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본격 정부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철우 보성군수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 부서장이 참석해 보성군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이룰 69개 사업을 선정했다. 보성군은 2024년 총 6312억 원 예산 확보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호남 정맥산 철쭉 휴양벨트 조성사업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보성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보성비봉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주월산 수목원 조성사업, △별교힐링 소득숲 조성사업 △웅치면 일리산 자연생태 숲길 조성사업 △봉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보성군 노후 지방 상수도 정비사업(2단계) 등 총 69개 사업이다.

보성군은 신청사업 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 역점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해, 중앙부처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점 추진 사업은 부근수를 단장으로 실과장들이 수시 예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부서는 사전행정절차이행 필요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사업 신청 시 국가재정계획에 요구하고 전남도 신규사업 목록에 반영토록 했다. 사업 다양성 설명자료도 작성해 중앙부처 필요성 질문 대비하고 있으며 사안별 중간 점검을 위한 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산림교육·유아숲 체험간담회 순천시의회, 조례 제정 대비



순천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 주관으로 ‘순천시 산림교육·유아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입안한 이복남 의원은 “봉화산, 남산 등 도심 내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 기탁 장흥연세치과의원



장흥군 장흥읍 소재 장흥연세치과의원(원장 이선형)이 장흥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장흥연세치과의원은 2015년 개원 이후 장흥교도소 진료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기탁한 성금은 기탁자의 의견에 따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아동을 위한 의류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선형 원장은 “장흥읍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마음에 기탁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중 장흥읍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 어른신 마음 특 정신건강사업 운영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2월 장흥읍 평장2구의 15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마음 특(talk) 터놓고 말해요’ 사업을 진행한다.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광양제철소 전기아연도금라인 ‘역사속으로’

1월까지 680만톤 제품생산 2025년 전기강판공장 완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 전기아연도금라인이 25년 4개월간의 여정을 끝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30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전기아연도금라인(2EGL·Electrolytic Galvanizing Line)은 냉간아연 공정을 거친 강판에 아연을 전기도금 하는 공정이다. 제철소는 1997년 8월 27일 2EGL공장 가동을 시작해 2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컬러강판, 내지문제품을 생산해 올해 1월까지 총 680만톤의 제품을 생산했다. 2EGL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 제품으로 변신해 전 세계인의 안방, 거실 등에서 쓰였다.

광양제철소 2EGL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아주 얇게 도금돼 가공성이 우수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아연도금라인이 25년 4개월간의 여정을 끝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공

할 뿐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균일하고 미려한 표면을 자랑해 국내·외 고객사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세계 철강 시장의 흐름과 무방항성 전기강판(HyperNO)와 같은 최고급 신모빌리티 소재 생산을 고려해 올해 1월 조업 중단을 결정했다.

2EGL 가동 및 운영을 맡았던 직원들은 올해 준공 예정인 전기 강판공장에서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갈 전망이다.

광양제철소 2EGL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은 광양 1EGL공장과 포항 1EGL, 2EGL에서 라인별 특성에 맞춰 생산돼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조수진 국회의원과 시정 현안 공유

순천시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순천을 방문한 국민의힘 조수진(비례대표) 의원과 정원박람회 개최를 비롯해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조 의원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시는 현안 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건의했다.

현안사업은 ‘여자만 갯벌습지 정원 조

성사업’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정원화 프로젝트’ 등 2건이다.

신전교 재가설 공사 외 2건 등 3건의 37억원 규모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정원박람회 개막식이 열리는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사업 중 하나인 도시 정원화 프로젝트는 순천만-국가 정원-도심을 잇는 거대 정원 축을 조성해

정원도시 표준모델(확장형)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여자만 갯벌습지 정원 조성사업은 순천과 보성 해양자산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여자만 일대 2000억원의 국비를 들여 갯벌습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순천 생태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지난해 힘을 실어준 웹툰센터 중심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와 특별교부세 19억원을 지원한 강변로 그린아일랜드 등의 현장을 둘러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추진 광양시, 아동 학습환경 개선



광양시 드림스타트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광양지구동문회 사랑나눔 봉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부터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광양지구동문회 사랑나눔 봉사단과 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사례관리 아동 중 회의를 거쳐 1년에 4가구를 선정한다.

변종근 포공 사랑나눔 봉사단 단장은 “6년째 광양시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취약가구 아동의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동이 희망을 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승택 아동동진화도시과장은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균등한 교육복지 속에서 아이들이 가진 잠재적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지원사업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